

■ 평가담당자

안나영 수석연구원
02-368-5339
nayoung@korearatings.com

박광식 금융2실
평가전문위원, CPA
02-368-5642
kspark@korearatings.com

■ 평가 개요

제58회 무보증사채 **AA+/안정적**
평가종류 **본평가**
전자단기사채/기업어음 **A1**

■ 등급 추이



■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 구분 | 2013(12) | 2014(12) | 2015(12) | 2016(12) | 2017(06) |
|---------------|----------|----------|----------|----------|----------|
| 총자산 | 294,760 | 404,264 | 404,921 | 410,220 | 435,195 |
| 자기자본 | 34,670 | 43,851 | 45,288 | 45,964 | 46,925 |
| 영업순수익 | 4,331 | 6,860 | 10,392 | 8,865 | 6,428 |
| 영업이익 | 445 | 1,110 | 2,917 | 2,858 | 2,782 |
| 당기순이익 | 302 | 684 | 2,046 | 2,111 | 2,051 |
| 총자산이익률(ROA) | 0.1 | 0.2 | 0.5 | 0.5 | 1.0 |
| 판관비/영업순수익 | 86.2 | 81.0 | 70.5 | 67.8 | 56.4 |
| 영업용순자본/총위험 | 522.9 | 407.8 | 268.3 | 237.0 | 237.4 |
| 순자본비율 | n.a | n.a | n.a | 1,341.9 | 1,528.0 |
| 조정레버리지배율(배) | 5.2 | 6.3 | 6.6 | 6.6 | 6.4 |
| 순요주의이하여신/자기자본 | 2.3 | 1.4 | 0.8 | 0.7 | 0.7 |
| 유동성비율 | 127.6 | 150.4 | 182.9 | 167.8 | 143.9 |
| 적용재무제표 | 별도 | 별도 | 별도 | 별도 | 별도 |

주1: 재무실적 및 비율은 동사 자료를 근거로 하되 일부는 분석 목적상 당사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주2: 2016년 이후 영업용순자본/총위험 비율,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임.

■ 평정요지

한국기업평가는 NH투자증권(이하 '동사')의 제58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며, 주요 평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 수위권의 시장지배력과 자본력에 기반한 사업안정성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매우 우수한 수준이나, 자본적정성 지표 저하세
- 적극적인 자본 활용을 통해 우수한 수익력을 유지할 전망
- NH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 높은 수준

상기 신용등급은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신용도에서 1노치 상향조정하였다.

■ 회사 개요

1969년 1월 한보증권으로 설립되어 2004년 舊 LG 투자증권을 인수하고, 2005년 舊우리증권을 흡수합병하며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였다. 2014년 4월 NH 금융그룹으로 편입되었고 동년 12월 NH 농협증권을 흡수합병하면서 시장지위가 재고되었다. 2017년 6월말 76개 국내 지점 및 6개 영업소, 2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 **평정논거(Key Rating Rationale)**

위탁매매 및 IB 부문 등 주요 영업부문에서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 평균 영업순수익 점유율은 8.1%로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H 농협증권(주)와의 합병 이후 점유율이 상승세(FY2016, FY2017.1H 점유율 8.6%, 10.0%)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 규모 4.7 조원의 대형 IB로서 자본력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운용, 기업신용공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확장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매우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 평균 판관비/영업순수익 비율은 70% 내외로 우수한 수준이다. 2015년에는 합병 비용과 구조조정 등이 수익성 측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6년 이후 판관비 절감, 고마진의 IB 부문 수익비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FY2016, FY2017.2Q 판관비/영업순수익 비율 67.8%, 56.4%)되고 있다. 다만, Peer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크고 기업여신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저하된 점은 부담요인**이다.

대형증권사에 유리한 정책 기조와 IB 부문에서의 사업역량을 고려하면 수익창출력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마진 수익기여 확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기조와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실적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금융 확대 기조와 2017년 하반기 이후 초대형 IB 업무개시에 따른 위험수준의 변화 및 자본안충력의 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NH 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룹 내 동사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NH 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등급전망 - 안정적(Stable)**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와 주요 사업영역에서의 고른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우수한 수익력과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증시 및 금리 등 국내외 시장변수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성은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이다. 또한 우발채무 및 기업대출 부담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채무보증 규모 및 리스크관리 수준과 자본적정성 변동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등급변동요인**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증권업 고유의 산업위험 및 경쟁강도가 약화되고
- 국내 증권업 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

반면, 아래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저위험자산 비중(3년 평균)이 45%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 조정레버리지배율이 7배를 상회

| 구 분 (별도 기준) | 연도별 | | | 3년 평균 | | |
|----------------|-------|-------|-------|-------|-------|-------|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저위험자산 비중 | 54.9% | 49.6% | 43.3% | 53.8% | 51.8% | 49.3% |
| 조정레버리지배율 | 6.3 배 | 6.6 배 | 6.6 배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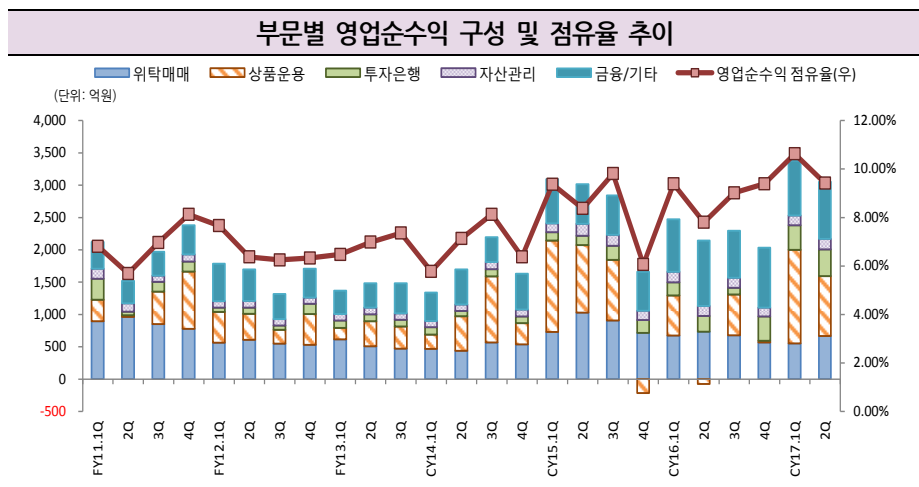
주: 저위험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신용공여금, 국공채 및 특수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 주요 평정요인(Key Rating Factors)

▶ 사업 요인

매우 우수한 사업안정성 보유, 대형 IB로서 시장지배력 제고 추세

동사는 주요 영업부문에서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와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광범위한 지점망과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풍부한 자본력, IB 부문의 특화된 사업경쟁력에 기초하여 최근 3년(FY2014~FY2016) 평균 시장점유율은 8.1%의 상위권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사에 유리한 정책기조하 자기자본 4.6조원 규모의 대형 IB로서 자본력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운용, 기업신용공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확장기조를 유지함으로써 FY2016, FY2017.1H 영업순수익 점유율은 각각 8.6%, 10.0%에 이르는 등, 시장지배력이 제고되는 모습이다.



주: 상기 재무실적 및 비율은 동행 자료를 근거로 일부는 분석을 위해 당사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감사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 재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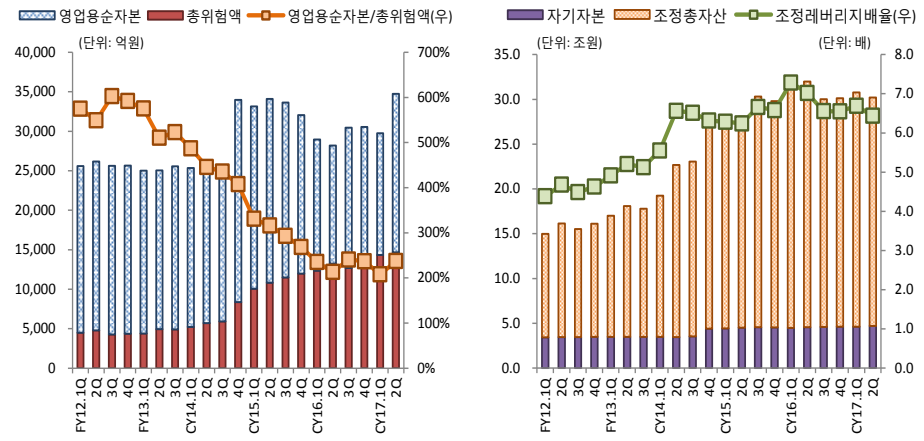
수익성 우수, 최근 수익성 개선세

대규모 구조조정과 합병비용 발생, 통상임금 해소, 투자자산에 대한 감액손실 등 비경상적 비용부담이 이어졌으나,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 안정된 이익창출이 유지되면서 최근 3 회계연도(FY2014~FY2016) 평균 판관비/영업순수익 비율은 73.1%로 우수하다. FY2015년 이후 업계 전반적으로 상품운용수익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FY2016에는 증시거래 위축, 하반기 금리 급등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인건비 절감 효과와 고마진의 IB 수수료 수익비중 확대에 힘입어 영업효율성이 개선되었다. FY2016, FY2017.2Q 기준 판관비/영업순수익 비율은 각각 67.8%, 56.4%로 개선 추세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매우 우수하나, 자본적정성 지표 관리 필요

현금및예치금, 국공채 및 특수채, 신용공여금 등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상회하고, 순요주의이하여신/자기자본 비율도 1%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대고객부채 증가에 상응하는 보유 채권의 증가와 우발채무 부담 및 기업대출이 확대되면서 2016년말, 2017년 6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총위험 비율과 조정레버리지배율은 각각 237.0%, 6.6배, 237.4%, 6.4배로 자본적정성 지표는 Peer 대비 다소 미흡하다. 2017년 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각각 1,544.4%, 883.3%이다.

영업용순자산/총위험 비율 및 조정레버리지배율 추이



주1: 상기 재무실적 및 비율은 동사 자료를 근거로 일부는 분석을 위해 당사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주2: 2016년부터 총위험, 영업용순자산, 영업용순자산/총위험 비율은 연결기준임.
 자료: 감사보고서, 분반기검토포고서, 업무보고서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우발채무 및 기업금융 익스포저 관련 모니터링 필요

2017년 6월말 기준 동사의 우발채무와 기업여신 규모는 각각 3.5조원(자기자본 대비 비중 75.6%), 1.7조원이다. Peer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큰 편이지만, PF 비중이 44%이고 그 외 대부분이 A 등급 이상의 건설사 외 기업대상 보증으로 분산되어 있어 특정업종에 대한 쏠림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NCR 가중평균위험값(NCR 채무보증 신용위험액/우발채무)도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을 고려한 위험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B 부문 강화가 지속되면서 기업여신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4년말, 2,245억원→2017년 6월말, 1.7조원)하고 있다. 기업여신의 대부분이 인수금융(쌍용양회, 흥플러스, 에이치라인해운 등)과 PF 대출, 브릿지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여신 규모의 증가 추세와 차주 신용등급 분포(대부분 BBB~A 등급)를 고려할 때 기업여신 관련 신용위험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향후 전망

국내 증권업은 대형사에 유리한 정책 기조

국내 증권업은 증시환경, 금리, 금융정책 등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기조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가 및 이에 상응하는 채권 규모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리 및 각종 지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순자본비율(新 NCR) 적용과 더불어 초대형 IB 육성방안 등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대형사의 자본활용도 제고를 장려하고 소형사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사업기회와 수익 창출력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Peer 증권사 간에도 위험인수 성향에 따라 영업실적 및 재무건전성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인 자본 활용으로 수익력 강화 예상되나, 위험증가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대형사에게 유리한 정책기조와 IB 부문에서의 사업역량을 고려하면 수익력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슬림화, 기업금융 등 고마진 수익기여 확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7년 6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과 채권 보유액이 각각 14.7조원, 16.8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기조와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 측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신용공여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2017년 하반기 초대형 IB 로서 발행어음 업무 개시

이후 2~3 년간 단계적으로 기업금융 확대가 예상된다. 동사를 포함한 대형 증권사들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파일의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적 차별화 요인과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계열 요인

NH 금융그룹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매우 높은 수준

NH 금융그룹의 우수한 사업역량과 재무건전성 등에 기반한 지원능력과 비은행부문에 대한 육성 의지 등을 감안할 때 NH 금융그룹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구분 | | 주요 검토 사항 |
|-------|-----------|--|
| 지원능력 | | 지원주체인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의 우수한 사업역량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신용도(당사 신용등급 AAA)를 보유하고 있음. |
| 지원 의지 | 중요도 | 농협금융지주가 동사 지분의 49.1%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의 계열 내 비중은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 | 통합도 | 비은행 자회사 중 핵심 자회사로서 이사회 구성, 농협금융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브랜드 공유 등에 있어 통합도 높음. |
| | 지원의 실행가능성 |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경영지도 의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책임부담 등 금융감독 규제는 동사에 대한 지원의지 및 지원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 | | 지원의지는 매우 높은 수준 |
| 지원가능성 | | 자체신용도 대비 1노치 상향조정 요소로 반영 |

■ 증권업 평가방법론 적용 결과

| 구분 | | AAA | AA | A | BBB | BB | B |
|-------|------------|-----|----|---|-----|----|---|
| 사업 항목 | 산업위험 | | | ○ | | | |
| | 시장지배력 | | ◎ | | | | |
| | 수익안정성 | ○ | | | | | |
| | 경영 및 리스크관리 | | ○ | | | | |
| 재무 항목 | 수익성 | | ○ | | | | |
| | 자산건전성 | | ○ | | | | |
| | 자본적정성 | | | ◎ | | | |
| | 유동성 | ○ | | | | | |
| 모델등급 | | | ○ | | | | |

주: ◎ 표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의미

본 평가는 당사의 공시된 증권업 평가방법론과 KR 신용평가일반론, 계열신용평가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 www.rating.co.kr 의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기업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의견으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본 보고서상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는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의견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예측정보 관련 유의사항>

본문 내 전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평가시점에 있어 당사의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예측정보이며, 이는 분석대상업체의 핵심지표 관련 당사의 전망에 기초한 영업손익 추정과 분석대상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지표의 변화 폭이 당초의 예상범위를 크게 이탈하고, 이러한 추세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반영한 Credit 검토를 토대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는 수급요인이나 환율, 금리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 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정보는 상기 <유의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제44조 제6항·제4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며, 평가의견의 일부입니다.

【장기 채무 신용등급 정의 및 회사채 부도율】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연간 부도율(%) | |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 |
|------|--|-----------|-------|-----------------|--------|
| | | 공식 | 광의 | 공식 | 광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0.00 | 0.00 | 0.00 | 0.00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0.00 | 0.00 | 0.00 | 0.00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0.00 | 0.00 | 0.36 | 1.29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0.00 | 0.00 | 1.72 | 5.71 |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5.26 | 5.26 | 9.17 | 12.50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16.67 | 16.67 | 15.78 | 17.99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0.00 | 0.00 | 14.34 | 25.29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0.00 | NA | 100.00 | 100.00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NA | NA | 35.38 | 53.84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 |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주2: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함.

주3: 구조화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구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기함.

주4: 공식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의해 산정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제9호에 의해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도율임.

주6: 연간 부도율은 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년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하고,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은 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함.

- 당사가 본 건 신용평가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업무보고서, 순자본비율검토보고서 등입니다.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09.12이고, 계약체결일은 2017.03.31이며, 평가종료일은 2017.09.14입니다.
- 최근 2년간 의뢰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계약 건수 및 총액은 각각 37건, 157.27백만원(정기평가 포함)입니다. 당사는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의뢰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수수료 비중은 신용평가 수수료 총액의 1.4%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가일 기준 2년 이내 비평가용역계약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비평가수수료 비중은 비평가 수수료 총액의 0%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평가일 현재 수행중인 비평가용역은 없습니다.

Copyright© 2017 :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599.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